

동성애에 대해 막연한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고민

시대마다 그 시대를 꿰뚫어보는 예언자들이 나타난다. 니체는 19세기 예언자이다. 가짜 예언자는 추측하지만, 진짜 예언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는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한 마디로 서구사회를 붕괴시켰다. 1882년 『즐거운 학문』에서 쓴 이 표현으로, 니체는 기독교로 대변되는 유럽의 형이상학적 가치체계에 종말을 고한 것이다. 니체 이전에도 기독교가 부패할 때마다 지식인들은 신은 죽었다고 한탄했었다. 하지만 니체 이후 '신은 죽었다'는 명제는 기독교적 사고가 얼마나 낡았는가를 조롱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에 이어 기독교에 날린 두 번째 강력한 스트레이트 펀치였다. 롤랑 바르트는 프랑스의 기호학자이다. 그가 1960년에 '저자는 죽었다'는 선언을 했다.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이란 에세이에서 저자의 권위를 해체한다. 그는 저자가 텍스트를 쓰지 않았다고 말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텍스트는 저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자의 손에 우연히 얻어걸린 것이다. 따라서 독자가 텍스트의 해석에 의문을 갖고 저자에게 질문해도 저자는 그 답을 해줄 권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바

르트는 선언한 것이다. 니체와 바르트는 의미가 인간을 억압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의미를 끊어내어 인간으로 하여금 의미에 억압받지 않고 텍스트가 주는 쾌락적 유희를 느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다루려는 동성애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 위치해 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적시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더 쉽게 다가온다.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동성 간 성행위로 감염된 것이다. 한국 역시 2013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위험국가'가 되었다.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에이즈나 동성애를 도덕적인 죄와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동성애를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에선 동성애를 죄가 아닌 개인의 취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법전도 아니고, 또 누구나 그 권위에 동의하지 않기에, 교회 밖 세상은 동성애를 성소수자 보호, 인권이란 시각에서 접근한다. 성경은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선언한다. 성경공부는 저자인 성령이 전달하려

고 한 메시지, 주제, 도덕 같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러나 교회 밖 사람들은 저자가 아니라 독자, 이데올로기, 수사학, 텍스트의 미적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경우에도 저자의 의도와 관련된 부분은 참고하지 않는다. 저자는 존재하지만 죽은 것이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동성애의 역사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고대 이집트에선 신과 동성애 관계를 갖는 것을 행운으로 여겼다. 남자가 신과 향문성교를 갖는 것은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표시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발굴된 관(棺)에 보면 창조신이자 태양신인 아툼(Atum) 혹은 레(Re)와 관계를 가졌다는 글귀들이 남아 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법전을 반포한 함무라비 왕도 많은 남성을 연인으로 두었다. 그는 기원전 1792년에서 1759년까지 바빌론을 통치한 강력한 왕이었다. 그리스에선 동성애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새겨진 항아리들이 무수히 남아 있다. 스파르타에서도 동성애는 일상이었다.

아랍세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뉴욕대 사회학 교수인 데이빗 그린버그(David Greenberg)는 동성애는 근대까지 번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버그는 “모로코에서 ... 남색은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저명한 이슬람 학자인 마샬 호지슨(Marshall Hodgson) 역시 “성인이 남자아이와 관계를 맺는 것이 상류층에선 너무 흔한 일이어서 굳이 이런 것을 숨기려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동성애는 이집트, 그리스, 메소포타미아뿐 아니라 켈트족, 고을족, 영국, 중국, 일본, 태국에서도 번성했다. 유대를 제외하곤, 동성애는 어디서나 번성했다. 동성애를 죄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대인과 크리스천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2015년에 실시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65%가 자신을

무신론자 혹은 종교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1991년 실시한 갤럽에선 같은 질문에 대한 수치는 26%였었다. 불과 24년 만에 무신론자가 39%나 늘었다. 이런 수치의 변화는 사회현상으로 확인된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19개국 중 유일한 민주국가이지만, 전체 인구의 10%가 동성애자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경제수도인 텔아비브의 경우, 인구가 43만 명인데, 이중 25%(10만 7천명)가 동성애자이다. 이 도시엔 동성애자를 위한 술집, 사우나, 클럽, 해변, 영화제가 번성 중이다. 동성애는 크리스천들에겐 혼란스런 영역이다. 교회는 다윈의 등장 이후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 창조론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난센스로 받아들인다. 고개는 끄덕이지만 관심은 없다. 20세기 내내, 그리고 가까이 있는 신무신론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 크리스천들은 좌절을 느꼈다. 그 좌절감을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진화론은 이제 학교 교육에서 필수 교과가 되었다. 이제 동성애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동성애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낀다. 하나는 성경에서 오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동성애를 비판하여 동료와의 관계를 망치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다. 두 가지 두려움 모두 근거가 있다.

인간의 경험은 읽고 해석해야 할 텍스트

철학과 과학은 새로운 관점을 따라간다. 신학 역시 새로운 관점에 도전을 받는다. 우리의 이해는 역사, 문화, 언어를 통해 유전되어온 판단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나의 시각은 인류가 역사와 경험을 통해 축적해 온 수많은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란 뜻이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보다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21세기 심리학자들은 20세기 초의 프로이트보다 인간의 심리를 더 정확히 꿰뚫고 있다. 새로운 발견과 통찰로 우리는 똑똑해진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일반인은 여기에서 갈린다.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석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불확실한 내일을 대비한 '저축'과 재산을 모으기 위한 '축적'을 가르치는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답하기 무척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수호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단자로 정죄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수도 커서, 그들이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해석하는 관점일 때가 많았다. 그 결과 처음엔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지고, 개신교는 다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같은 교단으로 나뉘졌다. 한국 장로교의 경우엔 세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은 결가자들이 생겨났다.

복음을 깨달을수록 우리 안의 편견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맥락을 깨닫기 마련이다. 지난 2천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깨달을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재고하곤 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나간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관점이나 이해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이해력과 신학을 신뢰하여 그것을 우상처럼 믿곤 한다. 지금 우리는 동성애를 한 방향으로만 해석한다. 정죄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생활은 쉽지 않기에 크리스천들은 정죄와 방임 혹은 관여와 도피 사이에서 갈등한다. 혼란을 줄이려면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성경교사들은 생각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해석학이다. 크리스천의 고민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지만 그 흐름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겐 지혜롭게 싸워서 이기는 기술, 전략과 통찰이 필요하다. 낸시 피어시(Nancy Pearcey)는 『완전한 진리』에서 이것을 변증으로 이해한다. 그녀는 변증을 생존의 도구로 여긴다.

이론에 근거하지 않는 해석이란 없다

문학을 전공하면 교과목 중 문학비평을 한 번씩은 공부한다. 그저 좋은 시나 소설, 혹은 극작품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론을 배운다. 다들 처음엔 시큰둥하지만 라캉, 푸코, 데리다, 벤야민, 사이드, 스피박 같은 이론가들의 글을 읽다보면, 해석을 하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문학작품뿐 아니라 자기 안에 숨겨진 두려움이나 욕망을 어떻게 찾아내고 해석하고 대처하는데도 도움을 받는다. 동성애를 다룬 대부분의 글들은 전문용어와 이론적 개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글들은 전문 학술지에 실리기에 크리스천들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읽지 않는다.

이론을 알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유익할까? 이론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읽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론을 배우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시킬지, 영화나 TV 매체를 통해 다루어지는 동성애를 어떻게 시청할지,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 같은 사회적,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슈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론은 문학, 역사, 영화나 음악 같은 인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도구이며, 이것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통찰력과 지적 능력을 키워준다. 하나님은 인간을 해석하는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해석이 나온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다. 간통죄는 돌에 맞아 죽을 죄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신다. 대신 스스로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문둥병은 오늘날의 에이즈 같은, 저주 받은 질병이었다. 환자로 확인되는 순간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추방된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비참한 가운데 죽어간다.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스킨십을 하셨다. 그들이 무엇에 고통 하는가를 아셨기 때문이다. 저자의 의

도를 깨달을수록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

문학에서 가족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어느 사회건, 어느 시대이건 그 중심엔 가족이 있다. 그리스인들은 에로스란 이름으로 가족을 망가트렸다. 맑스주의자들은 진보란 이름으로 가족을 해체했다. 오늘날 게이들은 공감과 평등이란 이름으로 가족을 공격한다. 문제는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기독교의 행보가 언론과 미디어의 눈엔 동성애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다. 엘리엇 마군지(Elliot Magunje)는 짐바브웨 시인이다. 그는 2003년 에이즈로 사망했다. 그는 죽기 전 이런 시를 남겼다.

나에 대한 당신의 말은 불공평해요.
내 동료들에 대한 당신의 말도 의심스러워요.
당신은 거만스럽게 나를 궁핍하다고 불려요.
뭔가 해줄 듯이 나를 희생자라고 부르지만 ...
나 없이는 어떤 제안도 통과시키지 마세요.
나 없는 자리에선 아무 말도 말아요.

마군지가 이 시에서 의도한 상대는 에이즈 전문가들이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천들에 대한 대접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인권으로 되받는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종종 위축된다.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노예제나 인종 차별처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똑똑해 보이지만, 거룩한 삶이 주는 영광스런 비전은 보지 못한다. 이들은 의무나 거룩함이 아니라 인권과 존엄을 주장한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막연한 불안감은 여기서 연유한 것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니체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는 걸 느낀다. 니체는 ‘신’이란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외쳤다. 당시 교회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지적 영토를 지키는 크리스천이 적었기 때문이다. 지금 ‘신은 죽었다’는 외침은 동성애 같은 문제로 바뀌었다. 이슈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기독교의 토대를 허무는 것이다. 교회가 동성애를 설교로 꾸짖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좀더 체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국제학술지에서 동성애 관련 논문들을 검색하다 가슴이 아팠다. 기독교 시각을 가진 논문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겐 염병을 막아줄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 너무 늦기 전에.



글 |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 쿿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